

피아노 조율사가 찾은 한 그릇 국수 면발의 향연



국수의 맛

조영권 지음, 이윤희 그림

섬진강에서는 재첩이 많이 난다. 재첩은 진한 갈색의 작은 조개를 일컫는다. 특히 재첩잡이 손들어 업은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생태적, 전통의 가치가 높다.

재첩을 주 재료로 하는 음식은 재첩국, 재첩비빔밥 등이 있다. 술꾼들은 뒷날 시원하면서도 칼칼한 재첩국을 먹으며 속을 달랠기도 한다. 작은 조개살이 맛있는 양념과 어우러진 재첩비빔밥도 식도락 가들의 입맛을 돋우는 메뉴다.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재첩국수도 있다. 중부 이상의 지역 또는 대도시에서는 맛을 볼 수 없다. 섬진강 유역에서나 맛볼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듯하다.

지리산 파아골에서 시작되는 물줄기와 섬진강이 만나는 곳 바로 구례다. 구례의 어느 식당에 가면 재첩국수를 맛볼 수 있다. “잘게 손질한 부추와 참깨가 가득하고 가운데 봉긋 솟은 소면 위로 재첩 알



쟁이기” 소담하게 엿혀 있다. 보는 이에 따라 제각각의 모습으로 비치겠지만, 아마도 지리산의 모습을 닮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지리산 자락에서 지리산을 닮은 국수 한 사발 하는 맛은 남다를 터이다.

피아노조율을 마치고나면

동네 국숫집을 찾아 국수를 즐기는 이가 있다. 피아노 조율사 조영권의 이야기이다. ‘경양식집에서’, ‘국수집’을 펴낸 바 있는 저자가 우리 국수 탐방기인 ‘국수의 맛’을 발간했다.

저자의 수첩에는 전국에서 맛봤던 우리 국수 이야기가 담겨 있다. 특히 근사한 한 끼가 되는 국수에는 ‘장수’, ‘잔치’ 등 다양한 의미가 깃들어 있다. 재료, 레시피, 조리법에 따라서도 다양한 맛을 연출하기도 한다.

책에서 소개되는 국수는 일반적인 히약 국수도 있지만 멘밀, 팔칼국수, 막국수, 두부오징어국수, 어탕국수 등도 포함한다. 종류도 가지가지이고 맛도 가지가지인 다채로운 국수 이야기를 따라 가다 보면 오늘 점심, 또는 저녁은 국수 한 그릇으로 우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든다.

김제전통시장에 있는 미원분식의 팔칼국수를 소개하는 내용도 있다. 보편적으로 전라도 사람들은 팔칼국수를 팔죽이라 일컬었다. 저자에 따르면 팔물에 칼국수를 넣어 먹기 시작한 지역이 김제와 군산이다. 저자는 팔은 전남 나주평야가 주산지이자

만 전북에서 팔칼국수가 유래된 데 대한 설명은 하지 않는다.

눈으로 봄다 색이 진하고 농도까지 진한 팔칼국수를 한 접시 비우고 나면 이 겨울 추위는 저만치 물러날 것 같다. 히약 면과 어우러져 입속에서 쫀득하게 달라붙는 겉挫折한 국물 맛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대전은 예로부터 철도의 중심지였다. 물자를 수송하는 요충지는 막거리가 많았다. 간단히 빨리 먹고 자리를 뜰 수 있는 음식이 국수인데, 저자가 대전 성남동에서 소개하는 것은 두부오징어국수다. 빨간 국물이 자작하게 담긴 대접에 큼지막한 두부, 적당한 크기로 잘린 오징어가 어우러진 모습은 절로 군침이 돌게 한다. 달짝지근한 양념에 부드러운 칼국수, 탱글탱글한 오징어가 씹히는 맛은 국수의 새로운 묘미를 느끼게 할 것 같다.

경기도 포천의 곰터먹촌의 김치말이국수에 대한 내용도 있다. 저자에 따르면 “오렌지빛 김치국에 소면이 맑아져 있고 두부와 달걀, 고기, 오이채가 고명”으로 조화를 이룬 모습이 상상만으로도 식감을 떠는 듯하다. 적당히 숙성된 된 달달하면서도 새콤한 김치를 싫어할 한국인은 없다. 이곳의 국수는 이복식 김치말이국수에서 볼 수 있는 두부가 들어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 그릇의 국수를 차려내기까지 노고의 시간이 어떠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

이밖에 책에는 부산 광안동의 회국수, 강원도 춘천의 칡국수, 충남 보령의 얼큰칼국수, 경북 상주의 뽕잎칼국수 등 30여 곳의 국수 이야기가 나온다. 담백한 애세이와 사진이 적절하게 어우러져 있다.

일러스트레이터이자 만화가로 활동하는 이윤희가 그린 만화도 보는 맛을 선사한다. 후루루 국수를 먹듯 가볍게 읽을 만한 내용들로 재워져 있다.

〈린틴틴·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역마다 종류도 맛도 다양한 국수는 한끼 식사로 훌륭한 음식이다.

〈린틴틴 제공〉



비빔국수
잔치국수
칼국수
막국수
냉면
건진국수
재첩국수
두부오징어국수

호로록
후루룩
오늘은
국수집으로

마음의 장소

나희덕 지음



산책과 여행은 삶을 견디게 하는 일상의 방식이다. 나희덕 시인이 최근 펴낸 산문집 ‘마음의 장소’는 이러한 산책과 여행의 과정 속에서 겪고 이동하는 시간 동안 지친 몸은 회복되고, 마음은 머물 자리를 찾게 되는 과정을 담았다.

시인의 세 번째 산문집 ‘한 걸음씩 걸어서 거기 도착하려네’를 전체적으로 손보고 글을 보태어 낸 개정판이다.

책에서 전하는 산책은 목적지를 향한 이동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다시 연결되는 행위이며 여행은 낯선 곳으로 떠나는 일이다. 보다 삶의 속도를 잠시 늦추는 선택에 기깝다.

시인은 햇빛과 바람, 비와 구름이 스쳐 간 장소들 속에서 자신이 지나온 시간과 감정을 차분히 되짚는다. 벤치와 길, 냉과 터미널, 섬과 마을 같은 구체적인 장소들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시인의 몸이 물러들고 마음이 반응했던 기억의 자리로 존재한다.

공간은 경험과 감정이 쌓일 때 비로소 ‘장소’가 된다는 말처럼 ‘마음의 장소’에 등장하는 곳들은 걷고 머무는 시간을 통해 삶의 의미를 풀게 된다. 책에서 중요한 것은 도달이 아니라 과정이다. 걷는 동안 생각은 흘러가고, 멈추는 순간 몸은 긴장을 풀며 회복을 시작한다. 영국과 아일랜드, 프랑스와 터키, 미국의 도시들에서부터 전주의 한옥마을, 회선의 백련지, 고흥의 소록도와 나로도까지 이어지는 장소들은 이동의 기록이자 회복의지도다. 시인은 이 장소들에서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다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을 발견한다.

시인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말하지 않는다. 다만 걷고 머무는 시간 속에서 삶의 속도를 늦추는 법을 전한다. “그리운 장소들을 마음으로 다시 걸으며 길 위에서 서성거리는 저를 만나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1만8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완벽하지 않은 것이 살아남는다

대니얼 R. 브룩스 외 지음, 장혜인 옮김

‘적자생존(適者生存)’은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되어 멸망함을 뜻하는 단어다. 이는 오랫동안 자연 불변의 법칙으로 이해되며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혹은 ‘약한자는 도태된다’는 인식으로 이어져왔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자연의 역사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존재는 언제나 가장 강하거나 가장 완벽한 종이 아니었다.

현장생물학자 대니얼 R. 브룩스와 살바토레 J. 에이고스타는 ‘완벽하지 않은 것이 살아남는다’에서 생존의 본질을 ‘최적화’가 아닌 ‘회복력’에서 찾는다.

책에 따르면 진화는 승자만을 가려내는 냉혹한 선별이 아니다. 살아남아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다양한 형태의 존재를 허용하는 느슨한 과정이다. 자연은 유기체가 환경에 완벽하게 맞지 않기 때문에 작동해왔다. 당장은 쓸모없어 보이던 변이와 임여가 위기 이후 새로운 길을 여는 씨앗이 되어왔다.

책은 진화의 원리를 인류의 선택과 겹쳐 보여준다. 1만2500여년 전 농경과 정착 이후 인류는 이동과 분산 대신 생산성과 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택했다. 그 결과 도시의 팽창과 자원의 집중, 경쟁과 전쟁의 구조가 굳어졌다. 한 환경에 깊이 뿌리내리려는 동안 변화에 대한 대응력은 약해졌다. 산업혁명과 20세기 대가속기를 거치며 기후 위기와 에너지 고갈, 생태계 붕괴로 이어졌다.

저자들은 해법을 자연의 진화 방식에서 찾는다. 완벽을 향한 최적화가 아니라 여지 를 남기는 느슨한 진화처럼 효율보다 여유를, 경쟁보다 공생을, 완성보다 회복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 가능성을 넘어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을 다시 상상하고 제안한다.

〈더퀘스트·2만50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우리의 다정한 이웃들

임성용 지음

“빨리 삼키. 살라마 버티. 움직이지 마.”

기석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이지만, 여전히 ‘빨갱이’라는 낙인 속에 살아간다. 고문 후유증으로 기석은 등에 담벼락의 모든 틈을 시멘트로 메운다. 그 틈에서 자신을 감시하던 존재가 다시 기어 나올 것이라는 공포 때문이다. 당시 그를 고문했던 이는 ‘재마이 행님’이었다. 죽도록 둥동이로 때리다가도, 정신을 잃어 가던 기석의 입에 사탕 두 알을 물려 넣어준 ‘다정한 이웃’.

임성용 소설가의 ‘우리의 다정한 이웃들’은 평범한 일상 아래 숨겨진 구조적 폭력과 파편화된 개인을 비춘 작품이다. 국가 폭력의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노인부터 학교 폭력으로 세상을 등진 학생, 실종된 딸을 찾아 헤매는 부모까지. 우리가 곁에 두고도 외면했던 이웃들의 ‘진짜 얼굴’을 복원한다.

표제작 ‘우리의 다정한 이웃들’과 연작 ‘두더지’는 군사 독재 시절의 폭력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석이 담벼락의 틈을 메우는 행위는 끝나지 않은 폭력의 흔적을 상징한다.

책은 절망에 머무르지만은 않는다. ‘토종 씨 우보 씨’에서 우보는 혈통과 순수를 따지는 세대 속에서도 “키우는 사람이나 잘 들여다보고 정성을 들이면 된다”고 말한다. 출신이나 과거보다 지금 여기에서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걷는사람·1만70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2025년 12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스 : 062-222-0195



특집 새해엔 해피 미니멀 라이프

- YOLO에서 YONO로
- 이지영이 전하는 ‘정리하는 이유’
- 전문가에게 배우는 ‘미니멀 전략’

복합문화공간, 도시 미래가 되다⑤

대구 오페라하우스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와
‘오페라 페스티’ 성공 주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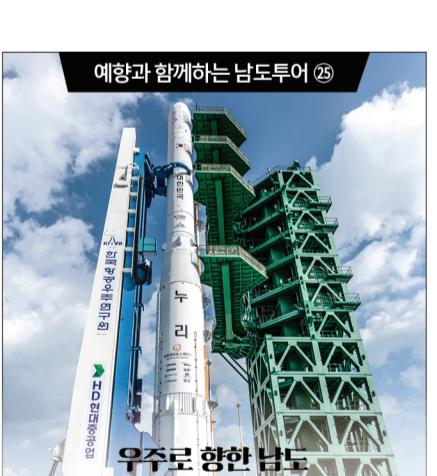


호남의 누정시즌2⑦→장성 백화정
대학자 김인후의
학문과 충절,
백화로 피어난 정자



신년기획-2026 트렌드

2026
HORSE POWER
인간의 속도,
변화의 리듬



조인호의 카워드로 읽는 광주 전남 미술사⑦
화폭에 담은 남도정서
오지호·임직순의 감흥회화



전시 화제
'오승윤- 풍수의 색, 생명의 선율' 전
문화 화제
전라도와 남도의 교류 이끄는
광주 출신 거문고 연구자 이정주씨